

## Sermon 24th of January

### 1 Corinthians(고린도전서) 12:12-31a, Luke(누가복음) 4:14-21

지난 월요일 아침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지게 하는 어떤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가장 최근 잔혹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의 행동에 관련된 것 또는 스포츠나 정치계의 스캔들에 관련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식 시장이나 어떤 대저택이 얼마에 팔렸는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드니 모닝 헤럴드 헤드라인 짧은 기사 위에 “62 명의 사람이 세계 반만큼의 부를 소유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단지 62 명의 사람들이 가난한 세계 인구의 반만큼의 재산을 소유합니다. 저는 그것을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묘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최상”의 반대말이 “욕설” 이라면 이것이 여기에 사용되기에 적절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것과 함께 다른 통계를 읽었습니다, 미국이 방어에 뒤따르는 다른 8 개의 나라를 합친 것 보다 도 5 배나 더 많은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것도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인구의 5%를 가지고 그리고 거의 세계 죄수들의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호주는 이런 통계들 중 어디에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2012 년 26%의 호주 죄수들이 원주민이라는 것, 반면 그들은 호주 전체 인구의 단지 2.6%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통계로 아마 낯을 잃게 했습니다. 저는 정말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헤드 라인 기사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를 말하려고 했고 그러나 흥분했습니다. 이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마 궁금해 하는 시기가 정말 있습니다. 우리는 파멸에 이르는 길로 내려 가고 있고 그것은 어떤 어두운 곳에서 끝날 것 이라고 느끼기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 교회에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마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아마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과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하시고. 우리도 충분하다”는 문장에 관해서 생각 했었습니다. 지 지난주에 저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물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오늘로 인도해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기대하나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복음을 이야기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나요?

우리가 이런 것 들을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기억 해야 합니다 누가 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뒤집혀진” 하나님 왕국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세례가 누가의 서론 예수님의 출생담과 사원을 방문한 에피소드 마지막에 표시 되었는지 주목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후에 성령이 그에게 강림합니다. 이것 후에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그의 삶의 한 부분에서 다음으로의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광야로 동일한 성령으로부터 인도된 것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가의 성령에 관한 진술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초점은 바뀝니다. 그것은 좁혀 집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관객들로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시골주위의 회당에서 가르친 갈릴리 회당으로 돌아옵니다, 나사렛에 가시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회당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자라 나셨던 그 곳을 한 동안 방문 하지 않은 것 같이 동사의 시제는 우리에게 이야기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 나고 있는지를 관찰할 때 우리는 속도를 줄입니다. 동사들에 주의하시고 묘사를 주의하세요. 예수님께서서 읽기 위해서 서 있으십니다. 그는 그 책을

받습니다. 그는 책을 펴니다. 그는 읽을 곳을 찾고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는 책을 다시 접고는 앉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합니다. 누가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때 그곳에는 거의 침묵이 흐른 듯 합니다. 그것은 아주 풍부한 묘사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나 히브리 사람들이 예언들에 깊이 빠져 있는지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들의 성취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그들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압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은 한 문단에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하나님의 보복의 날” 같은 어떤 말씀들은 생략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 인용은 이사야서 61 장에서부터입니다, 이사야 58:6 -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의 말씀을 삽입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좋은 소식 이라고 부르는 복음에 관한 진술입니다. 누가는 꽤 의도적으로, 동등한 마태복음과 마가 복음과 다르게 진술합니다. 그들에게, 동등한 문장이 나중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왕국복음에 관하여 가르치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몇 명을 부르신 후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알려지는 계시의 순간이 왔을 때, 예수라 불리는 사람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듣는 것 같다는 것을 여러분 들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우리 누가 복음의 독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로 예언된 예수를 연결하는 노래들을 들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송가, 사가랴의 노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시몬의 찬양 그리고 여자 예언자 안나의 말씀들.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취로서 보여지는 것에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노래들에서 언뜻 볼 수 있었던 우리 인간의 기대들을 뒤집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이해되진 않은 듯 합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안수 받았다는 것 또한 압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회당에 모였던 나사렛 사람들보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그들은, 요셉의 아들로 인식되는 한 사람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봉독에 따르는 한, 그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음주에 들을 이야기에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위대한 설교자이며 선생이신 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흥분되고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여기 지금, 린필드에서, 우리는 누가 복음으로부터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진정 우리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를 통해서 전달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래 전 제가 사역 훈련을 받을 때, 선교와 복음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이 말들은 꽤 다루기 힘든 주제였습니다. 교회들은 자주 “복음적”이라는 라벨로 나누어 집니다. 어쨌던 그 용어는 오순절 교회와 어울리게 됩니다. 이 용어는 거의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많은 다른 종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듯이 말입니다. 고린도인들 에게 쓴 바울의 서신은 우리는 다른 반면에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 이며 그래서 어느 누가 다른 어떤 이 보다 낫다고 이야기 할 수 가 없다고 우리에게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가 가난한자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언하고, 그것의 머리에 있는 평이한 순서를 바꾸어 성경을 실현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이 모든 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권한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 가느냐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누구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핵심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복음주의”의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하도록 질문을 받았습니다. 누가 복음의 이 문단을 펼쳤습니까. 이 문단이 많은 것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단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수 있나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오늘 여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 하신, 성취 하신, 이 메시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아는 우리 삶의

근거가 되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 입니다. 우리는 자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관해 이야기 합니다. 이 말씀들은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이 복음에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삶의 방법이고, 치유이며, 용서와 구원을 의미하는 전체인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묘사된 방식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위치에 있다고 아마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보여진 그 삶의 방식은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답해야 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그 희망 안에 살기 위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보는 절망에 굴복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심지어 그때 예수님 주위에 있었고 그리고 그를 알았던 사람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 이라 는 것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를 보내어 혹시 그 가 “그분” 이신지 예수님께 물어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주위를 둘러 보라 그리고 보아라 어떻게 눈 먼 자가 보고, 절름발이가 치유되는지



그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그들을 위해서 거기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역시 우리들의 시대에 이 증거 들을 보나요? 우리에게 볼 눈과 들을 귀가 있나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모든 이 시대를 돌보는 것이라고 심지어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전에 관찰 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의 메시지는 실패로 증거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 치욕, 고통으로 끝이 난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친한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가 선포한 모든 것들을 - 오늘아침 우리가 읽었던 예시된 말씀들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이 희망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 주위의 세계에 선포 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이것을 계속 믿을 수도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이 Yes 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즉시 돌아오실 것을 기대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즉시 돌아 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룹을 재 편성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재 편성

했을 것 입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만 합니다. 세상은 확실히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힘을 받았는지 자주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그 복음서의 특징입니다. 성령은 역사에서 물러서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활동 중 입니다. 우리는 우리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자신의 다른 여정을 돌아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인도되고 자유로 와 졌는지 치유의 터치를 알게 되었는지 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제가 미리 잘 준비했다면 몇몇 분들에게 그분들의 삶에서 그런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와 나누기를 요청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대신 저는 나사렛의 성전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실현되었는지 선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한 목사가 10 대 소녀를 살해한 한 남자를 방문하러 갑니다. 그는 21 년동안 사형집행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 목사는 그들의 대화에서 그 사형수가 끊임없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목사는 결국 그 은혜의 감정이 죄책감을 뒤덮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미안해 말고 우리의 슬픔에 의해서 변화되기를 요구합니다. 저에게는 이것의 매일의 변화입니다.” 이 죄수에게 은혜와 죄책감은 긴장관계에 있었습니다. 용서는 그의 죄의 기억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를 죄에서 자유롭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나의 죄를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용서를 받고 자신을 용서할 한 순간이 와야만 합니다. 당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 받았고 용서 받았습니니다.”

그 목사는 계속 했습니다. “나는 그 탁자로부터 뒤로 물러났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 살인마가 뭔가 폭력을 행사 하거나 뭔가 끔찍한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최악 중에 최악을 상상하며 교도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무너진 죄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속 받고 그리고 함께 하나가 된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한 괴물을 신사로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힘인 은총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론을 냅니다. “철창살 뒤에 또는 죄책감의 창살에 가두는 것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재소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로 받아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성전의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들을 때 그것은 여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방식으로 답을 할겁니다. 그러나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특권을 누리는 자들과 불이익을 당하는 자들 사이의 큰 장벽으로 둘러싸여있는 우리주변을 둘러보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사랑을 하도록 불리워진 사람들을 위해 자유의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도록 불리워졌다는 것을 믿는 다는 뜻입니다.